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로 희생된 많은 이들 앞에 가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현장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다쳐서 누워 있는 학생들을 보면 붕대가 없어서 천으로 싸여 있거나 안대가 없어서 일반전을 사용한 모습, 붕대, 반창고 등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대충 싸매다 만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번 용천역 폭발 참사가 아니라도 북한 내에서는 치료할 의약품이 거의 없고, 링거줄이나 1회용 주사기도 2-3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산에는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평은 경작을 하지 못해 황폐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계들은 20년이 넘는 골동품입니다. 그것도 기름이 없어서 작동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용천역 폭발 참사도 낙후된 북한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들을 접하면서 오랜만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북한의 동포들을 돕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발 반기는 일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경희 한국 JTS해외지원사업부장

용천에 심는 자비의 씨앗

그동안의 대북지원에 정부와 종교·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국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는 지원의 위협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이웃, 북한을 돕자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정부와 종교·민간단체가 묵묵히 지원해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진행...

왔던 도움의 손길이 모여 어느 순간에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이 목소리가 모여 남북의 통일로 나아가리라 생각 됩니다.

아직은 주는 우리의 모습이 받는 북한의 모습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물자는 받지만 인력지원이나 수송을 육로로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동요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혹시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닌지, 이 지원품들이 정부관리나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상반된 태도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하고 폐쇄된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북한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남한도 이번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지원하면서 이것이 바로 쓰이나 다른 곳에 쓰이는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생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사를 떠나 드는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 앞에서 손의 계산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무자상보시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북한을 포용할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번 용천역 폭발 참사를 계기로 남북한이 서로 믿고 화합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2004년 4월 28일 열린 제169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상을 '직지'라는 이름으로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기념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청주시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 상은 세계 기록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뿐더러 우리의 성보문화재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지'는 세계인의 성보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에 점차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성보문화재 가운데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선판만대장경, 그리고 직지심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3년에는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전시한 '신성상의 전래 - 한국과 일본의 초기 불교 미술전'이 뉴욕 타임스에 의해 2003년 미국에서 개최된 최고의 전시회로 선정되었다. 비평가 홀랜드 코터(Holland Cotter)씨

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소개한 전시회"라고 극찬하였다. 이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우리의 성보문화재 가운데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적지 않다. 고려 및 조선불화, 불상, 신라동화, 고려정병, 불경판화, 동자상, 조선시대 목조공예 등. 최근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꾸준히 우리의 성보문화재를 수집하고 있다. 성보문화재를 통해 우리 불교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뜨거운 관심과 달리 정작 불교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성보문화재를 왜 세계화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동기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각국에 소장된 우리의 성보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세계인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파악하며, 우리의 성보문화재를 외국에 소개하는 전시회, 외국어 출판물 등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불교계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정병모(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데 그 구멍이 이척이면 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최근 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남지사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왕따 동영상' 문제로 중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끊은 등, 하루라도 자살 소식이 신문 지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다. 또한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만나 집단 자살을 하거나 정부 자살을 요청하는 등 자살은 이제 흥미거리로 전락한 듯하다. 이런 행동을 마치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난과 신병을 비판하거나, 불명예를 참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참아보지도 않고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한 역경을 극단적인 자살로 마감하는 것은, 분명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무책임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생존시에 60명의 자살을 도운 '미가란디'라는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비구들이여, 이것은 그 승려들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법에 알맞은 것이 아니고 사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이 계율을 공포한다. 승려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살을 도와 줄 사람을 구하거나 하면 함께 살 수 없다' 팔리어 율장'에 임종시 경계하였다. 자살은 죄가 무거워 승가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바로 '바리이죄(波羅夷罪)'에 해당된다.

강유신(해부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자비 보험금운동은 '필수'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제반복지가 전무후무한 상태였다. 특히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스님들이 노후를 위해 주지 또는 주요 소임을 맡는 기간 동안 사재를 축적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온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종단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문화적, 역사적 보고로써 중요한 자산인 사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불국사, 석굴암에 찬사를 보낸다. 조계종의 모든 사찰과 스님, 재가불자들이 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스님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은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의 대비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의 시대에서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보험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이부

분은 원만히 실행할 때, 종단에서 안고 있는 제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다. 도원(뚫다뉴스)

'세상에 도움되는 불교' 감명

4월 26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대만 불광산사 성운 스님 초청법회에서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스님의 법문은 한국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간혹한 수행만 강조한 나머지 중생 교화와 사회복지 참여에 너무도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절 차차하고 좋은 차를 타려는 스님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아타의 좋은 가르침은 도외시한 채 일신의 영욕에 눈 먼 수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운 스님의 법문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에 기도하고 예물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변화는 나로부터, 내가 다니는 사찰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 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자리아타를 실천해보자. 가까운 이웃부터 되돌아보자. 불법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우창석(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사찰 사회참여 부족 아쉬워

북한 용천역 열차사고 소식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특히 등교를 위해 열차를 이용한 아이들의 인명피해가 막심하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메어지듯 아파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근사찰을 찾았다. 공영방송이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가 북한주민 돕기 성금 모금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불자로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북한민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사찰에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어떠한 모금운동도 준비되지 않았다. 스님은 사찰의 규모가 작을뿐더러 종단이나 각 불교계기관들에게 벌이는 운동도 많으니 각기 문의를 해보라고 했다.

웬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도움의 손길에 대소가 어디 있으며, 비록 적은 액수가 모일지라도 그 자체가 큰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신도들이 종단이나 불교단체들의 소식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앙위원의 사회참여는 불자들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점이다. 나조차도 사찰에서 북한돕기 사업이 없다는 말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노선희(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연대 민명 심민섭. 물리적 문화재 보존, 감동으로 문화재 보존. 아, 이 현경함이어...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尊敬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易學은 몇 천년 내내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리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심마당 長腦山蔘.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